



비룡폭포



민족의 명산 (2) 묘향산



하미로암



묘향사의 8자13층암

이 땅은 그 어디나 다 절경이지만 그중에서도 묘향산은 산세가 기묘하고 수려하며 경치가 아름다와 널리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산의 기묘함을 금강산에 비기고 산이 웅장함을 지리산에 비졌지만 묘향산은 그 기묘함과 웅장함이 한데 어울린 명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실로 묘향산은 예로부터 《8만 4천봉》이라 불려오듯이 웅장하고도 기묘한 수많은 봉우리들과 큰 바위들, 깊숙한 계곡들과 높은 벼랑, 수경같이 맑고 맑은 물과 수많은 폭포들, 울창한 수림과 언제나 시원한 그늘을 던져주는 여름철의 짙은 녹음. 가을의 눈부신 단풍, 겨울철의 설경, 여기에 못새들의 지저귀임과 여울소리 등이 한데 어울려 어디를 보나 뛰어난 절경을 이루고 있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묘향산을 조선8경의 하나로 널리 자랑하여왔으며 묘향산에서도 여덟곳의 뛰어난 경치를 《묘향산 8경》으로 꼽아왔다.

산세가 기묘하고 수려한 묘향산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명

산일뿐 아니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선조들의 애국적인 투쟁이야기가 깃들어있고 민족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으며 국제천선전람관을 비롯하여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건설되어 명산으로서의 그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묘향산에서도 가장 뛰어난 절승을 이루는 곳은 묘향산을 사이에 두고 앞뒤에 솟은 연봉들과 기암들, 골짜기용치로 이름난 상원동, 만폭동, 천태동, 칠성동 등 계곡들과 수많은 폭포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영치에 어울리게 우아하게 일떠선 기념비적인 건축물들과 문화유산들이 집적되어있는 신향산일대이다.

묘향산에는 묘향산력사박물관, 비로봉담사속영소, 향산호텔, 묘향산건식매대, 묘향산약수터 등이 있다.

또한 상원동, 만폭동, 비로봉에 오르는 등산길에 마련되었으며 탐승로에는 자연영치에 어울리면서 탐승에 편리한 안전시설들, 휴식터, 휴식각 등이 구비되어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시정시

삶과 조국

오설악

한가지 일을 해도
그것이 조국을 위한것일 때
스스로 그렇게 느껴질 때
마음은 무뎠 기쁘더라
날땀이 즐거움 솟아더라

그리고 보는데 없을 때
남몰래 하는 일일 때
기쁨은 감절로 커지고
사는것이 끝없이 자랑스럽더라

날마다 차례지는 조국의 은혜
그저 받는것이 죄스럽구나
어머니조국
허리띠 조이며 마련한것기에
그 천만고생과 맞바꾼것기에

조국이 나에게 베풀어주는것
하늘땅만큼 크고큰데
내가 조국에 해놓은 일
티끌보다 작고작아라

생활의 길엔 갈래 많아
망설인적도 있어라
힘찬한 가시밭길 가로놓일 때
조국앞에 주저할뻔 한 부끄러운 순간도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리사랑은 없다는 말
나를 두고 생겨났는가
어머니사랑이 영원하듯이
자식의 효성도 무한해야 하거늘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 삶에 뜻을 주고 길을 주고
원하는 모든것 다 안겨준
아 어머니조국을 위함이라면

받은것만 맘속에 깊이 새기고
바치는건 혼연히 잊어버리며
조국위해 이 한몸 리검볼 되는것이
나 삶의 의미이며 보람이여라

그렇게 유한없이 살다가
나에게도 생의 저물녘이 오면
그 순간도 헛되어 맞지 않으리라
조국에 값높은 보람이 되게
죽음도 삶처럼 아름답게 장식하리라

그러면 행복하리라 영원하리라
어머니품에 웃으며 잠든 자식은
한생의 시작도 전부도 마감까지도
조국에 바쳤다고 말할수 있는 사람들...

평양문화어의 우수성을 더 잘 살려나가겠다



우리 민족은 고대시기부터 하나의 말과 글자를 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아왔다.
조선어는 처음부터 평양말을 중심으로 발전하여왔다. 그것은 이 땅에서 문명의 시작도,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겨레의 동질성도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것을 놓고서도 잘 알 수 있다.
평양문화어는 민족적특성이 높기 발원된 언어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부터 어휘정리사업을 힘있게 벌인 결과 불필요한 한자말과 외래어들이 고유어로 대체되어 평양문화어가 하나의 정연한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평양문화어는 현대의 요구에 맞게 세련된 규범적인 언어이다.

평양문화어는 어휘와 표현도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게 발전 풍부해 되고 세련되었다.

오늘날 평양문화어는 말소리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문화적으로 세련되었다.

평양문화어표준발음법이 세워지고 평양문화어화술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발음과 억양, 말투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문법구조와 문체분야에서도 현대의 요구에 맞게 세련되어 말과 글의 간결성과 정확성, 명료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표현성과 형상성이 높기 발양되고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평양문화어의 우수성과 순결성을 보장하며 건전한 언어생활기풍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연구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안순남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탁구 강자 김혁봉, 김정



공화국의 품속에서 어려서 부터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4.25체육단 탁구선수로서 성장한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2013년 프랑스의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탁구연맹 제52차 세계탁구(개별종목) 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단연 우승의 영예를 지녔다.

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는 예선단계와 본선경기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나 국제탁구연맹이 발표한 세계순위 에 따라 예선단계를 거치지 않고 본선경기에 직접 참가

한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여러 단계 경기들에서 불같은 공격전을 보이대며 련승 하였다.
이들의 련전련승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었다. 특히 준결승경기는 매우 치열하였다.

준결승경기에서 최전점수 0:3이라는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었지만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4회전부터 위력한 공격전을 즐기차게 보이대어 상대팀을 완전히 제압하고 마침내 경기를 승리로 결속하였다.

이러 결승경기에 나선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상대팀의 특기를 파악한데 기초하여 대담한 선제공격을 보이대어 마침내 세계패권을 쟁취하고 금메달을 금지높이 안아올렸다.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2014년에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도 맞닿는 상대팀들을 통쾌하게 물리치고 존엄높은 공화국기발을 누리에 빛내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사랑하노라 (7)

글럼예성, 그림 김윤일

나는 천천히 실험실문을 열었다. 청소를 시작하면서 창문을 활짝 열자 맑고 청신한 공기가 기다렸다는듯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특독독,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뾰족한 하얀 구두가 보였다. 하얀 양복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

「저... 정인동지를 찾아왔습니다.」

「이건 정인동지가 출장을 가기 전에 우리 분석연구소에 부탁하고 간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출장을 갔다와서 맡긴 시료들을 분석한것이고 이걸 다른 나라의 파마약과

우리 파마약의 대비분석자료입니다. 자기가 없으면 유정이라는 동무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그가 우리 파마약의 시험생산을 부정했던 바로 그날부터 분석결과가 적혀있었다. 놀라움이 온몸을 휩쓸었다.

나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부정한 바로 그날부터 그는 자기것뿐 아니라 나의 연구과제까지 말아서 연구를 했던 말인가?

수입제와의 대비율 99%, 99.3%, 99.5%...
나의 분석표가 떠올랐다. 수입제와의 대비율 74%, 75%, 78%...
우리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것인가? 바로 여기서부터...

그는 99.5%도 만족할수 없었지만 나는, 이 혼유정이 나는 자기만족에 잘 빠지는 처녀는 78%에서 만세를 불렀던것이다. 나에게서 우리 실정에서 그만쯤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언제나 존재하였던것이다.

《원수들은 저들의 제제

와 압박속에서 우리가 그럭저럭 대충 살아가는데 습관되게를 바라서... 그래서 자기것에 대한 궁지가 허물어지고 그 궁지로 떠받들던 우리 제도가 허물어지길 바라서 그토록 피눈이 되어 날뛰는거요. 세계가 인정하고 우리 인민이 인정하는 세계 일류급의 우리의것을 만드는 데 우리 과학자들이 앞장서야 하오. 주체화는 우리 조선의 운명이고!》라고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이 이 순간 생생히 귀전을 쳤다. ...

얼핏 창문쪽으로 머리를 돌리던 나는 소리없이 굳어졌다.
까만 가방을 어깨에 걸친 그가 구내길을 걸어오는것이 보였다.

심장이 못처럼 활랑거렸다. 왜 이렇게 허둥거릴까? 수삼나무옆새들속에 피독가리위진 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기를 안타깝게 기다려지게 되었다.

청사로 뛰어드는 순간 그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는것이 보였다.

외국에서 공부할 때의 제1경쟁적수가 졸업하는 날 자기 정인의 재능에 탄복한다

4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미 만세를 부른 것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세계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밝히우고 남에게 먹히우는 세계, 남의 노예가 되는 세계이다.
지금 이 시각도 우리 조선의 사회주의발전예 제동을 걸기 위해 피를 물고 날뛰는

제국주의의 숨가쁜 발악소리를 그는 저 세계를 통해 시시각각 느끼고있는것이다.
그래서 정인은 달리고있다. 내가 대학의 수천명학생들을 이기려고 그렇게 애쓸적에 그때 벌써 그의 꿈은 세계를 이기는것이였기에.
고요한 복도를 울리며 그의 침착한 발자국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있었다.

속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은 다 일찍 퇴근하였다.
나는 거울앞에서 오히려 머리를 빗었다.
까맣고 윤기도는 소담한 머리채에 반짝이는 코스모스빈천 하나를 올리듯 손이 가볍게 떨렸다.
나는 목색의 자그마한 손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안에는 오늘 실험한 파마약이 자그마한 하얀 용기에 들어있었다.
분위근내길을 툭툭박 걸었다.

어느덧 푸른 일세를 펼친 수삼나무들이 정렬하듯 늘어선 구내길을 10분정도 걸어가면 과학원정문을 나서게 된다.
이제 이 정문을 나서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까?
잠시후에 나는 미용원의 대형유리창문앞에 서있었다. 뚱뚱고 수다스러운 미용사는 오늘도 여진히 입과 손을 다같이 열심히 놀리며 한 녀인의 머리를 해주고있었다.
자기가 나와 나는 그에게 눈인사를 보내며 미용원의자에 앉았다.

「아니, 전에 왔던... 참, 머리를 하고 왔지요?」
「예, 그런데 어머니, 전 약을 가지고왔습니다.」
미용사의 얼굴표정이 언뜻게 찌그러졌다.
무슨 처녀가 이렇게 타산이 밝담? 하는 못마땅한 눈빛이었다.

전통적인 민속명절 추석

추석의 유래

음력 8월은 들밭의 오곡백과 무르익고 풍성한 가을걷이의 기쁨을 호소한 마음으로 내다보는 즐거운 계절이다. 음력 8월에는 우리 민족의 민속명절의 하나인 추석이 있다.

추석이란 가을저녁이라는 뜻으로서 가을이 무르익는 좋은 계절인 가을월의 달밤은 보름날을 명절로 즐긴데로부터 생긴 말이다.
추석을 가위날 또는 한가위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을의 중간, 가을의 큰 명절을 의미하는 말이다.
올해의 추석은 9월 21일이다.

추석음식 송편

우리 선조들은 추석이 다가오면 잘 익은 울버를 베어다가 쪄어 떡가루를 만들고 송편을 빚었다.
송편에는 소의 종류에 따라 팔송편, 개송편, 대추송편, 송기송편이 있었으며 송, 송기, 대추 등을 다져서 나뭇잎을 우려내어 만든 5색 송편도 있었다.

송편끼리 엉켜붙는것을 막고 송잎향이 났을 때에 배에게 하여 송편왕을 놓게 하였으며 떡겉면에 송잎무늬가 새겨지게 하여 보기도 좋게 하였다.
최근에는 송편이 탄수화물이 적고 영양가가 높은것으로 하여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있다.

추석날 달구경

추석날이면 달구경 또한 이채를 띠었다.
우리 선조들은 추석날밤이면 비이삭 설레이는 언덕너머로 떠오르는 유난히도 밝은 둥근달을 바라보며 제나름의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소박한 꿈이 담긴 시와 노래를 즐겨 하였다.

여기에는 우리 겨레의 다양한 정서생활과 풍만한 가을에 대한 열렬한 지향이 담겨져있었다.
우리 선조들은 추석날밤에 달이 밝으면 그해 밭곡식이 잘될것이라고 좋아하였고 구름이 끼면 밭곡식이 잘 여물지 못할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추석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속명절이다.
신진혁